# 함즐함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 : 15


**358**

**2015.12.20**


**2015년 주님의교회 표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 사 6 : 8 )

### 오늘의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5:2)

### 오늘의 주요기사


| | |
|---|---|
| 2 | 사명의 한해 결산 |
| 3 | 사역 소식 |
| 4 ~ 9 | 27주년 기념 지상토론 |
| 10 | 이임 교역자 인사 |
| 11 | 2016년 업무 분장 |


### 교회 일정

| | |
|---|---|
| 12/20(주) | 가족과 함께하는 성탄예배 |
| 12/25(금) | 성탄절,유아세례 |
| 12/31(목) | 송구영신예배 |
| 1/3(주) | 신년주일,성찬주일 |
| 1/4(월) –9(토) | 신년특별새벽기도회 |
| 1/11(주) | 정기당회 |


**발행인** : 박원호
**편집인** : 배익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 2015년 섬긴 귀한 손들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 22:39) 하셨던 예수님 나신 날 앞두고,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마 6:3) 올 한 해를 섬긴 분들의 손을 모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 분들의 "사랑으로 비를 내리게 하고 사랑으로 평형을 이루고, 사랑으로 바람을 불러 작은 미나리아재비꽃 줄기에까지 머물게" 할 터이니, 참 곱고 귀한 손들이다. '사명'을 표어로 삼았던 올 한 해, 주님 앞에 올릴 예물로 이보다 참한 것이 또 있을까.

올해 첫 〈함즐함울〉의 1면 제목은 "세상 속에서 소망의 근거가 되어야 할 교회"였다. 사명을 주제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가 펼침막에 인쇄되어 한 해 동안 교회 대예배당에 걸려 있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 하셨으니, 이 귀한 손들이야말로 예수님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겨울 새벽 찬바람에 주차안내를 하거나, 무더운 여름날 털 목도리를 한 코 한 코 뜨거나, 호스피스 환자 마른 발 주무르거나, 경로당 식사 준비와 설거지에 젖은 이 손들을 보면 왠지 가슴이 찡하다.

결국 세상은, 사회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든, 이렇게 말보다, 얼굴보다, 손에 물을 묻히며 묵묵히 일하는 보이지 않는 분들에 의해 지탱되는 법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하는 것!

**함즐함울**


우리 신문은 자연보호를 위해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2015년 송년 특집

# 올해의 한자 '病(병들 병)'

벌써 12월이다. 메르스라는 낯선 이름의 전염병이 느닷없이 창궐하면서 혼란스럽기 짝이 없었던 2015년이, 엘니뇨의 영향으로 변덕스러운 날씨와 함께 황혼처럼 저물고 있다. 함즐함울 팀에서는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서,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한자인 '병'을 올해의 한자로 뽑았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염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염병이 그치니라."
(민수기 16장 47절~48절)

2015년을 마감하는 함즐함울의 편집회의에서 올해의 한자 후보로 검토된 한자는 壁(벽 벽), 閉(닫을 폐), 球(구슬 구), 病(병들 병), 界(지경 계) 등이었다.

'벽'자는 지난 한 해 우리 사회 도처에서 발견되었던 유형무형의 '벽'을 상징하는 한자였다. 은수저, 금수저로 비유되는 타고난 신분의 차이가 젊은이들의 희망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으로 두드러져 나타나기도 했고, 광장에는 소통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순식간에 마련되기도 했다.

시나브로 이제는 누구나가 공감하게 된 경제 위기설은 소비자의 주머니를 닫았고(폐), 이런 저런 다양한 소통의 통로가 막히면서, 이제는 마음의 문도 닫아거는 시대가 되었다. '폐'자와 함께 '계'자가 후보에 오른 까닭도 '벽'자와 다르지 않아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는 경계선이 특정 사람들에 의해서 이데올로기에 따라, 종교에 따라, 이익 집단에 따라, 권력과 정치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정해지고, 그에 따라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풍토 때문이었다. 아흔 아홉 마리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형제와 가족을 편가르기 하는 이 풍토가 과연 주님 원하는 길인지 생각해 볼 일이 아닐까 싶다.

이런 와중에서도, 특히 구기 종목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은 빛났다. 골프, 축구, 야구와 같은, 공을 갖고 하는 스포츠 분야에서 전해진 승전보가 그나마 사람들의 마음에 드리워진 그늘을 비추어 주는 작은 불빛들이었다. '구'자가 언급된 것도 그런 까닭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자기만족이 될 수 있음에 후보에서 밀렸다.

마지막으로 남은 글자는 '병'이었다. 지난 5월~6월 두 달간 병명조차도 생소한 중동 호흡기 증후군(中東呼吸器症候群, MERS)이라는 신종 전염병을 만나 전 국민이 무방비상태에서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주님의교회에서도 마스크를 지급하고,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예방과 기도에 힘쓰기도 했다. 근래 들어 지구촌에 신종바이러스의 출현은 연례행사가 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특히 올해 메르스라는 질병에 대처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병'이 만연해 있음을 새삼 발견한다. 1998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주제 사라마구의 〈눈 먼 자들의 도시〉는 돌연 창궐한 전염병에 의해,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세상사람 모두가 눈이 멀게 된 상황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세상 사람이 눈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순간, 이 세상은 체면도 도덕도 잃어버린 지옥으로 바뀌고 만다. 메르스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창궐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은, 눈앞의 물질과 성과와 이익과 권력에 눈이 멀어, 결국 일을 그르치고 마는 이 사회의 또 다른 숨은 병이었다. 이익에 눈이 먼 병원, 남의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는 개인, 당장 눈앞의 곤란한 상황만을 회피하려는 관료,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 본질적인 반성을 하기보다 남 탓으로 돌리고 마는 우리 모두의 숨은 '병'이 이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드러났던 것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네 이웃을 네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다른 이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다면 이미 퇴치되었을 이 고질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몸 속에 남아서, 틈날 때마다, 약한 모서리를 찾아서 전파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듯하다. '병'이 올해의 한자로 선정 된 까닭이다.

**病의 사전적 의미**

생물체의 온 몸 또는 일부의 정상적인 생리기능이 파괴되어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고통을 느끼게 되는 현상 또는 사물에 생기는 탈이다.

**病의 성경적 의미**

과로 · 노년 · 술 · 죄 · 과실 · 징계 · 시험과 연단 ·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고통을 느끼게 되는 현상이다.

**病의 문자적 의미**

病(병들 병) : 몸이나 정신의 이상을 나타내는 疒(병들어 기댈 녁, 병질 엄)에 밝고 건강함을 상징하는 丙(남녘 병)을 결합하여 '밝고 건강한 사람을 벽에 기대고 앉아 못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병이다'라는 문자가 만들어졌다.

함즐함울

2015년 사명 특집 I "주여! 여기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연재를 마치며

# 목수에서 교사까지, 일곱 명의 삶 통해 바라본 사명의 세계

지난 일년간, 함즐함울에서는 올해 교회 표어였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특집을 통해서, 교회의 낮은 곳에서 말없이 헌신하는 일곱 명의 성도들을 만났다. 톱과 끌과 망치로 이웃을 섬기는 목수부터 시작했던 이 시리즈는, 되도록 이름과 얼굴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교회 안팎에서 주님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데 힘쓰는 일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려 했다.

얼굴을 온통 마스크로 가린 채, "장로의 본분은 심부름꾼"이라면서 모두들 기피하는 주방에서 땀 흘리는 어르신, 주님 주신 역이라면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성극에 열정을 바치는 늙은 배우, 힘에 부치는 지체부자유아이들을 자식같이 돌보고자 사랑나무를 창설한 권사, 말보다 행함이 중요함을 사회 운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은퇴 교수, 통일의 그날을 위해 평양에 학교를 세우고 돕는 늙은 집사, 어린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어, 자매보다 더 자매같은 인상을 주던 할아버지 유치부 교사, 이들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모범이었다. 2016년에는 우리도 또다른 이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함즐함울

자매교회 소식 | 오클랜드 주님의교회 창립 20주년

# 멀고먼 뉴질랜드의 형제 교회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 주님의교회가 지난 11월 8일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이 교회는 1995년 7월 18일 오클랜드 교민 다섯 가정이 모여 교회 설립을 위한 기도 모임을 갖고, 같은 해 9월 12일 서울 주님의교회에 목회자 파송을 요청하면서 주님의교회와 인연이 시작되었다. 1995년 10월 30일 교회 명칭을 오클랜드 주님의교회로 정하고, 11월 12일 우리말로 첫 예배를 드렸으며, 11월 둘째 주일을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기로 했다. 12월 22일 주님의교회가 파송한 이동규 초대 담임목사가 부임했으며, 1997년 3월에는 서울 주님의교회와 형제 교회의 관계를 맺어, 제직을 상호 인정하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1999년에는 주님의교회 출신 김화수 목사가 2대 담임목사로 부임했고, 2009년 김화수 목사가 임기를 마치고 현 이달견 목사가 제3대 담임목사로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5년에는 성전 입당예배를 올렸고, 문화센터를 설립했다. 바누아투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피지와 파키스탄에 단기선교를 하는 등, 해외선교에도 폭을 넓히고 있다. 20주년 기념 예배에는 주님의교회 박원호 담임목사가 참석, 형제 교회의 우의를 빛냈다.

함즐함울

자매교회 소식 | 첫 번식교회 길가에교회 창립 10주년

# 학원과 교회 협력의 또 다른 모범

주님의교회의 첫 번식교회로, 경기도 남양주시 동화학원을 터전으로 삼고 있는 길가에교회가 12월 6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렸다.

길가에교회는 주님의교회와 같이, 학원과 교회와의 뜻있는 협력을 바탕으로 개척된 교회이다. 2005년 7월 주님의교회와 동화학원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교회 설립이 추진되었고, 그해 12월 1일 '길가에교회'로 교회명을 정하고, 11일 주님의교회에서 파송예배를 통해 이인호 목사와 장년 30여명이 파송되면서 창립되었으며, 동화중고등학교의 강당 여호수아홀과 전용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다소 독특한 교회 이름은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길'이 표상하는 삶의 현장을 위해, '길'이 향하는 목적지를 향하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과정을 뜻하는 '길'임을 보여주기 위한 뜻에서 유래했다. 매년 첫날 금침(금식과 침묵) 수련회를 갖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은 이웃에게 국수를 대접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창립 10주년 기념예배에는 주님의교회 박원호 담임목사가 설교를, 김도묵 은퇴장로가 축사를 했으며, 이외에도 많은 교인들이 참석, 풍성한 교제를 나누었다.

함즐함울

자매교회 소식 | 창립4주년과 J주님의교회 목사 위임식

# 다문화가정과 소외된 이웃 선교

12월 6일 오후 1시 30분, 지난 2011년 주님의교회에 의해 개척된 J주님의교회 이호 목사의 위임 예배가 진행되었다.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J주님의교회는 2010년부터 주님의교회에 의해 개척을 준비하여, 2011년 8월 14일 창립예배를 올렸다. 특히 다문화가정 선교에 중점을 두고 섬기고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을 위한 성경공부모임과 성탄 가정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을 위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지난 8월 창립4주년을 맞은 J주님의교회는 이날 이호 목사가 담임 목사로 위임됨으로써 독립된 교회로 굳건히 서게 되었다.

이호 목사는 주님의교회 부목사를 역임했으며, 개척할 때부터 주님의교회 교인들이 정착을 위해 파송되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함즐함울

사역 소식

# 도서 기증, 지혜와 사랑의 빛

주님의교회 도서팀에서는 4월에 이어 10월에도 도서기증 캠페인을 펼쳤다.

도서기증 캠페인의 목적은 각 가정에 보지 않고 방치된 책을 기증하여 필요한 사람과 나누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15년은 그 네번째 행사로, 많은 성도가 기증에 동참했다. 특히 아동도서는 이미 등록된 책을 제외하고도 3천권에 이르는 양이 기증되었다. 중복되거나 여타의 사유로 교회 도서실에서 등록이 제외된 많은 책들은 여러 작은 교회와 한전병원 사랑의 책방에 기증되었다.

캠페인이 끝나더라도, 도서기증은 아무 때나 가능하다. 캠페인 기간에는 1층에서 책을 기증받지만, 그 외의 기간에는 5층 교회도서관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성도자녀들의 게임중독, 스마트폰 중독의 유일한 대안은 부모님이랑 손잡고 교회도서관 나들이 하는 것입니다"라고 도서사역팀 신영백 팀장이 도서실 사용을 권유했다.

함즐함울

창립27주년기념 특집기획 : 함즐함울 지상토론 "주님의교회, 미래를 생각한다" ❻

# 주님의교회의 바람직한 미래

창립27주년기념 특집기획 "주님의교회, 미래를 생각한다", 그 여섯번 째로 '주님의교회의 바람직한 미래' 에 대해서 주님의교회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네 분이 좋은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성함의 가나다 순으로 수록합니다.

이 글, 또는 '주님의교회의 미래' 에 대한 교회 안 여러 의견을 보내주시면 다음호에 수록하여 같이 생각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주님의교회 공동체 구성원 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 대해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의견과 기고도 또한 부탁드립니다.

hamletter@daum.net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즐함울**

**발제 순서**

❶ **주님의교회 정체성의 내면**

임기제, 무기명헌금, 50대 50, 교회건물의 무소유, 청소년 사역 등 주님의교회의 제도로 표현된 정체성에 대한 배경사, 철학, 정신, 신학적 타당성 등을 분석해 봅니다.

❷ **교회사적 의미로 본 주님의교회**

한국교회사를 배경으로 주님의교회의 형성 과정과 영향 관계를 통사적으로 살펴봅니다.

❸ **교회 안에서 본 주님의교회**

주님의교회 내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상황, 관행, 공동체의 실천적 일상 등을 정체성에 비추어 살펴봅니다.

❹ **교회 밖에서 본 주님의교회**

교회 밖 누군가가 바라보는 주님의교회, 즉 인접교회, 교단, 학교 등과의 관계에서 주님의교회의 의미와 평가에 대해 살펴봅니다.

❺ **사회적 공간에서의 주님의교회**

한국 당대 사회와의 관계에서 바라본 주님의교회의 역할과 과제를 알아봅니다.

❻ **주님의교회의 바람직한 미래**

**이런 여러 상황과 관점을 배경으로, 주님의교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향해야 할 미래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 주님의교회, 그 바람직한 미래

**주님의교회에 미래가 있는가?**

**주님의교회**는 미래가 있는가? 당연히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교회**의 '미래'란 단지 '오지 않은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미래를 가리킨다. 바람직한 미래는 **주님의교회** 교인들에게 바람직한 미래가 아니라 교회의 주이시고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람직한 미래다. **주님의교회**의 바람직한 미래는 단 한 하나다. 주님이 받으실만하고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모습, 그것이 바람직한 미래다. 그 때에는 **주님의교회**는 주님이 소유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직할영토가 될 것이다. **주님의교회**는 주님이 성령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종횡무진하게 감화 감동시킬 때 **주님의교회**가 된다. 주님이 바라시는 바람직한 교회는 사도행전 2-4장의 예루살렘 사도교회,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교회, 요한계시록 2장의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 3장의 빌라델피아 교회다. 이 모든 교회들에서는 주님의 성령과 말씀이 자유롭게 역사했다. 그들은 주님께 민첩하게 순종하며 견실한 사랑과 우애로 충만했으며 세상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언했다. 주님의교회가 이런 이상적인 교회상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주님의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자**

송파구 정신여고에 둥지를 튼 주님의교회는 개혁적인 노선과 자기쇄신노력으로 유명해졌다. 무엇보다도 주님의교회가 도입해 시행한 제도들은 한국교회의 만성적 폐해를 정조준하며 개혁하려는 염원의 표출이었다. 그것은 교회의 과두소유와 과두지배 관행을 극복하려는 몸짓이었다. 담임목사 및 장로임기제, 교회건물 무소유를 통한 부동산축적 금지, 무기명 헌금을 통한 돈권세 억제 조치 등이 바로 주님의교회가 취한 개혁적 조치들이었다. 이 모든 조치들은 인간들이 교회주인 행세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다. 담임목사 및 장로 임기제, 교회건물 무소유, 무기명 헌금 도입 등 이 각각의 제도개혁은 한국교회를 역청구덩이에 몰아넣는 치명적인 부조리와 폐습을 척결하려는 노력이었다. 당연하게도 이 주님의교회의 개혁조치들은 한국교회 안팎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어떻게 이런 개혁들이 시행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주님의교회는 주류교회의 관행과 관습을 타파하려고 주류교회를 뛰쳐나온 자발적인 난민들로 구성된 공동체요 실험적 교회였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특히 담임목사임기제와 장로임기제는 담임목사와 당회가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막아내는 방호벽이 되었다. 한국교회의 개척담임목사는 교회를 자신의 사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 자연스럽게 목회세습을 시도할 정도다. 소위 성공한 개척담임목사들의 영향력은 신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그들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거리를 아주 좁혀주고 하나님의 가시적 축복을 성도들에 손에 쥐어주는 듯한 환상을 심어주는 근접밀착목회, 축복기도 방출형 샤만 목회자 이미지를 구축했다. 이런 성공적인(?) 담임목사들은 교회사유화를 당연시하고 교우들을 주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양떼라고 생각했다. 이런 담임목사와 회중과의 불건전한 애착관계를 끊는 구조적 개혁이 담임목사 임기제였다. 장로가 주축이 되는 당회는 교회의 재정사용과 기획 등을 결정하는 원로원같은 기관이다. 김동호 목사의 〈생사를 건 개혁〉이라는 책에서도 잘 지적되듯이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당회의 과도한 교회정치가 늘 문제가 되었다. 장로임기제는 당회가 교회의 모든 일을 농단한다는 혐의를 벗기 위한 자기갱신적 조치였다.

이 결과 주님의교회에는 교회 여론을 주도할만한 영적 토호세력이 생겨나지 않아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었으며 상대적으로 새로운 교우들의 진입장벽도 낮아졌다. 주님의교회는 그동안 아마 이런 제도적 개혁조치의 혜택을 어느 정도는 누렸을 것이다. 교회건물 무소유도 교회자산을 관리할 장로나 실세교인들의 등장을 막는 데 이바지했을 것이다. 부동산이 모이지 않는 교회는 세상이익을 좇아 교회실세가 되려는 사람이 출현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의교회는 이 제도개혁원칙을 이제까지 잘 지켜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 2대 담임목사님들은 어두운 그림자를 남기지 않고 지역교회인 주님의교회를 떠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주님의교회는 여전히 주류교회의 여러 가지 폐습과 부조리에 지친 영적 난민들에게 일시적 혹은 상당한 기간의 피난처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하는 주님의교회**

하지만 주님의교회의 미래가 이 피난처 역할에만 머물 수는 없다. 주님의교회가 한국교회의 인습적 폐습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이 소극적인 노선이 주님의교회의 미래가 될 수는 없다. 이제 주님의교회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주님의교회가 이런 몇 가지 폐습을 근절했던 결단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때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교회는 안락한 난민 피난처 수준을 벗어나야 한다. 주인의식 없이 무임승차 ↗

주님의교회가 한국교회의 인습적 폐습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이 소극적인 노선이 주님의교회의 미래가 될 수는 없다.
주님의교회는 안락한 난민 피난처 수준을 벗어나야 한다.
주인의식 없이 무임승차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난민들이 붐비는 가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난민들이 붐비는 가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의교회는 지역에 뿌리를 내리되 강남의 중산층문화와 교양을 복음과 기독교신앙의 위엄으로 혁신하여 주님의 재림 때까지 존속하는 교회로 성장하여야 한다. 이런 자기혁신이 없는 제도개선은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목사 및 장로임기제와 교회건물 무소유정책의 빛이 어둔 그림자로 드러날 경우도 있다. 즉 장로 및 목사 임기제와 교회건물 무소유 등은 교회를 오랫동안 지키고 섬길 핵심봉사인원과 기획집단의 형성을 더디게 하거나 어렵게 해 교회의 장기 발전계획 노력을 방해할 수도 있다. 주님의교회가 장기 투신 성도들의 부재 때문에 응집성 약화는 물론이며 장기발전기획력 등에서의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고려할 쟁점이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교회의 주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교회가 모두 다에게 낯선 타인의 공간처럼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예배당이 없다는 것도 교회를 지킬 장기 투신 교우들의 교제권 형성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주님의교회가 예배당 무소유를 자랑하는 데서 나아가 어떻게 예배당을 짓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증거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정신 여고만 주님의교회가 전력을 쏟아야 할 선교지가 아니다. 인근에 얼마나 많은 학교가 있으며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가를 돌아봐야 한다. 예배당을 안 갖고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예배당 갖는 것보다 반드시 더 신령한 것은 아니다. 예배당은 단지 물리적 장소이기만 한 것이 아니며 신앙과 신학을 표현하고 증거하는 복음증거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예배당이 주님의교회가 주창하는 신앙과 신학을 표현하는 건축물일 때 그것 자체도 복음증언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무기명 헌금제는 유력헌금교우들의 교회정치 관여를 막는 기능을 발휘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그것이 기명헌금 제도보다 더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기명헌금과 무기명헌금 둘 다 성경에 나오지만 구약에서는 기명실명제 헌금사례도 발견된다. 무기명 헌금제도를 교조적으로 옹호할 것이 아니라 교우들이 일정정도 성숙했다면 기명헌금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성경적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말은 무기명헌금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명헌금제도보다 절대로 더 성경적이라는 자족감에 젖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도개혁 자체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적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주님의교회가 주님의 성령에 이끌려 부단히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주님의교회는 안디옥처럼 온 교우가 균질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결론**

이를 위해 주님의교회는 로마서 12장, 고전 12장, 14장, 에베소 4장이 그리는 바람직한 은사민주주의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 각종 성령은사를 할당받은 교우들의 민주적 소통으로 경영되고 운영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성령이 활동하는 교회다. 주님의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덧입은 각 개별교우들이 저마다 성령의 은사와 재능을 만개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교회를 영(靈)민주주의 교회, 은사민주주의 교회라고 부른다. 주님의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서 안디옥교회처럼 바나바와 바울 같은 기둥 같은 지도자들을 기꺼이 주님의 쓰심에 내어드리는 자기배출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또한 주님의교회가 지역사회에 하나님나라의 실재를 맛보게 해 줄 선교적 사명에 응답해야 한다.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사회를 생명과 평화공동체로 변혁시킬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주님의교회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로서 강남의 중산층 문화에 도전할 수 있다. 주님의교회는 이사야 2:1-4의 예루살렘성전이나 에스겔 47장의 회복성전처럼 세상 변혁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중앙집권적 권위를 행사하는 담임목사도 없고 당회도 없는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도 없으면 그것은 영적으로 이완된 개인들의 이합집산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김회권** 교수/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 초심(初心)을 돌아보는 시간

2015년도 한해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12월이다.

순간순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 애쓰며 앞을 향해 가다보니 흘러가는 시간을 알아채지 못한 채 2015년의 끝자락를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올해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와중에 주님의교회 창립 27주년 특집기획 함즐함울 지상토론에 대한 원고를 맡게 되었다.

처음 원고의 기고를 부탁받았을 때는 마지막 원고를 맡았다는 부담감에 망설였지만 이것 또한 주님이 주신 기쁨이라고 생각하며 글을 쓰게 되었다.

주님의교회와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길이 무엇일까?

우선,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고 현재를 통해 미래의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기에 주님의교회의 과거 처음 시작했을 때를 되돌아보았다.

처음 주님의교회는 교회건물 무소유, 무기명 헌금, 50/50원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즉 학교건물을 빌려 교회건물을 갖지 않는 대신 교회재정의 50%이상을 선교와 구제활동에 쓰는 교회, 교인들이 봉투에 이름을 적지 않는 무기명 헌금방식으로 운영되는 교회로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1988년 창립 후 27년이 지난 지금, 이와 같은 주님의교회의 초기의 비전은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으며, 그 원칙아래 현재의 대교회로 성장해왔다.

그렇다면, 그간의 교회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이며, 앞으로도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방향이 무엇일까.

그것은 초심(初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나름대로 큰 포부를 가진다. 하지만 초심을 잃는 순간 위기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다. 현재의 지위에서 점점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교만함으로 초심을 잃게 되며, 더 낮은 지위로 가게 되면 목표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실망감으로 초심을 잃게 된다.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초심은 어느새 기억 속으로 사라진다.

초심을 잃는 경우는 우리주변에서

창립27주년기념 특집기획 : 함즐함울 지상토론 "주님의교회, 미래를 생각한다" ❻

# 주님의교회의 바람직한 미래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명한 맛집으로 이름을 알렸던 식당이 어느 순간 유명세를 잃고 사라지게 되는 경우이다. 식당을 개업하고 처음에는 손님 한명 한명에게 정성을 다하여 대한다. 하지만 점점 손님이 많아져 유명세에 심취할수록 친절함과 손맛을 잃게 되고, 이를 느끼는 손님들은 그 식당을 다시 찾고 싶지 않게 된다. 손님의 발길이 떨어진 식당은 당연히 유지가 어렵다.

교회가 운영되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처음 교회를 창립하였을 때의 기본 원칙, 주님을 섬기는 마음, 그리고 교인 한분 한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등을 유지하지 못하면 교인들은 그 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를 찾아 점점 그 교회를 떠나게 되며, 더 이상 교회가 유지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구정을 수행하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선 구민들의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이 신뢰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선 구정 철학과 구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이행하겠다는 처음의 다짐과 마음가짐 즉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구민들이 바라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의 위치보다 더 큰 도약과 가능성의 길목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 낮은 자세로 주민 가까이서, 주민의 눈으로, 진심과 책임을 다하며 모든 구민들에게 든든한 언덕이 되어 희망의 구정을 펼치겠다는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듯 어떤 일을 하든지, 초심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는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

주님의교회가 지금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만의 기본원칙을 고수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았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나갈 수 있었으며, 창립 27년이 지난 지금에도 굳건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4~5절을 보면 초심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나온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의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버려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을 되짚어 보면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라" 즉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로써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님의교회의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선 지금의 위치에서 다시 한번 초심을 돌이켜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주님의교회가 한 단계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주님의교회만의 비전과 가치를 고수하며 주님을 섬겨왔듯이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교회성장에 대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초심을 지킨다면 주님의교회는 앞으로 50년,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 중심을 걷는 교회, 주님의교회가 나아갈 길

**우리들 앞에 놓인 도전들**

주님의교회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래에 다가올 중대한 도전들을 예상해 볼 필요가 있다. 신앙적 차원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은 소위 "가나안 성도들"과 무종교인구 특히 "청년 무종교인구"의 급격한 증가 현상이다. 가나안 성도란 신앙은 있지만 여러 이유로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교회라는 제도 밖에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데 최근 이들의 숫자가 100만에 육박한다는 보도가 있다. 그렇다면 아직 까지는 교회에 출석하지만 잠재적 가나안 성도도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아예 신앙 혹은 종교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 최근까지는 반 기독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기독교에 대한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증가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심각 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현재 19-29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약 70%가 무종교 인구이다.

이러한 탈 교회, 탈 신앙, 탈 종교 현상과 연관하여 미래에는 포스트모던적 성격의 명상, 요가, 기 수련, 마음수련 등 웰빙과 힐링을 중시하는 영성적 종교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게 될 것이다. 개인적이고, 탈조직적 성격을 지닌 영성적 종교는 기존의 제도적 종교로부터 상처받고, 실망하고, 흥미를 잃은 많은 사람들을 흡수할 것이며, 상당 부분 기존의 제도적 종교를 대체해 나갈 것이다. 다음으로 미래에는 소비주의, 쾌락주의, 성공주의 등에 기반한 세속주의적 삶의 양식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풍요한 시대에 이런 가치관을 지니고 성장한 다음세대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세속주의적 삶은 더욱 강한 영향력을 발휘 할 것이다. 더불어 종교의 사사화도 미래 종교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종교가 공동의 삶과 공생에 대한 비전과 책무성을 상실하고 종교 안으로만 매몰될 때, 즉 신앙과 실천이 개인주의화되고 사사화 될 때,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신앙적 정체성과 관계성의 균형**

이러한 미래에 대한 예측은 주님의 교회로 하여금 강한 신앙적 정체성과 더불어 세상과의 관계적이며 소통적 능력을 지닌 공동체가 되도록 요청하고 있다. 사실 정체성과 관계성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양자가 분리된 정체성과 관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님의교회는 성도들의 확고한 신앙적 정체성 형성과 더불어 이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대화하며 섬기는 관계적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역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지금 보다 더 창조적으로 잘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신앙적 정체성과 관계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신앙의 "상승"과 "회귀"의 차원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일대 신학부 교수인 미로슬라프 볼프(Miroslav Volf)는 기독교와 같은 예언자 종교는 모세의 경우처럼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받는 상승적인 차원과, 동시에 산에서 내려와서 즉, 현실의 삶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제도와 기구와 법률로 만들어서 실현해 나가는 두 차원이 존재하는데 양자는 항상 긴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수직적 성격을 지닌 전자가 신앙의 정체성이라면 수평적 성격을 지닌 후자는 신앙의 관계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기독교의 메시지와 언어를 보편적인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나가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이웃들의 상황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섬기고 나누는 삶을 일상화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의 시민사회 맥락에서 성도들이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선을 위하여 공헌하는 시민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무신론과 포스트모던적 영성이 더욱 강한 세력을 발휘할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여 주님의교회는 성도들이 예배, 선교, 교육, 교제, 섬김의 현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하고 그 분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확고한 신앙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주님의교회는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 차원에서 성도들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을 통하여 상승적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노력들을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하여 점검하고 시대적, 문화적, 연령별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대안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한다.

동시에 주님의교회는 상승적 신앙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섬김과 나눔의 신앙 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일대일의 관계이며 동시에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야 한다. 공동체성이 상실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는 개인주의적 신앙으로 빠질 위험이 높다. 구역, 교구, 여러 부서, 조직, 소그룹 등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지하고 깊이 있게 나누는 진정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공동체적 만남과 사귐을 위한 미래의 교회 사역은 맞춤형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맞춤형이란 성도들의 다양한 신앙적, 문화적, 연령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성육신적 사역을 뜻한다. 전통적인 교회사역이 주로 교회지도자들의 의도대로 기획되고 다수의 회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미래의 사역은 성도들의 다양한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고 대화적인 방법이 많이 사용되어야 더욱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직적 차원의 신앙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은 개인적(personal)이지만 사적(private)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명심 할 필요가 있다. 주님의교회는 성도들이 확고한 신앙적 정체성 혹은 상승적 신앙을 소유하고, 동시에 이를 삶의 현장과 사회에서 시험하고 실천해 나가는 관계적 신앙 혹은 회귀적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성도들이 개인적, 공동체적으로 인격적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받은 말씀을 직접 삶의 현장에서 실험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능력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empower) 지원해야 한다. 흔히 교회는 차량을 정비해 주는 카센터 혹은 기름을 채워주는 주유소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다. 주일의 예배와 사역을 통하여 성도들은 한 주간의 삶을 말씀의 렌즈로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과 새로운 힘을 얻고 위로와 격려를 받고, 월요일부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가운데 주일-평일-주일-평일… 등으로 계속 순환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주님의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언어로 변증(변호)하고, 사회와 소통하고, 사회를 섬기고, 사회를 변혁시켜나가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세상과의 소통을 통한 선교를 위하여 기독교의 메시지와 언어를 보편적인 언어로 통역하여 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나가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이웃들의 상황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섬기고 나누는 삶을 일상화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의 시민사회 맥락에서 성도들이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선을 위하여 공헌하는 시민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남북의 평화통일, 경제적 양극화의 극복, 생태계의 보존, 공교육의 정상화 등과 같은 공적 사안들에 대하여 성도들이 분명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공적 영역에서의 토론, 대화, 합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대안적 사회를 함께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 헌신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요즘 교육학에서는 "역량"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 데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기술과 태도 뿐 아니라 심리 ·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복잡한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주님의교회는 성도들에게 단지 성서적, 신학적 지식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지식에 기초하여 바르게 응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구비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서적, 신학적 지식 자체보다 성서적, 신학적 관점에 기초한 자기 관리 능력, 문제해결력, 정보활용 능력, 영적분별 능력, 창의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시민의식, 갈등 관리 능력, 봉사 능력 등과 같은 역량을 구비시켜주고 강화해 나가는 사역이 미래에는 더욱 더 많이 요구된다.

**구조와 성령의 균형**

개혁 교회(reformed church) 전통에 속하며 동시에 지속적으로 "개혁하는 교회"(reforming church)로써 주님의 교회는 정체성과 관계성의 긴장과 더불어 구조와 성령 사이의 균형을 지향해야한다. 여기에서 구조란 교회의 제도, 기관, 행정 차원을, 성령이란 성도 개개인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동적인 인도와 역사를 뜻한다. 개혁하는 교회는 구조와 성령 사이의 계속적인 긴장을 유지해 나가는 교회이다. 교회를 지탱하는 구조 혹은 제도와 성도 개개인을 향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상호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먼저 주님의교회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역과 제도들이 원래의 정신과 잘 부합되게 실천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화 혹은 율법화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 공동체적 성찰이 여러 평가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기초한 교회개혁의 정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개혁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교회의 규모가 너무 대형화되어 구조와 성령 사이의 건강한 균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는 더 이상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주님의교회는 양자의 긴장유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교회의 구조는 합리성, 효율성, 수월성을 필요로 한다. 이는 다양한 인적, 물적, 영적 자원들을 관리하고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이것이 개혁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 하에 있지 않을 경우 제도화, 화석화, 율법주의의 길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님의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분별의 능력을 형성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의 현재 구조와 제도가 영적 활력을 상실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지속적으로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합의하고 결정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중심을 걸어가는 주님의교회**

주님의교회는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기초하여 다양한 개혁을 시도해 왔고 이를 통하여 한국교회와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더불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장로, 목사 임기제, 무기명헌금, 50대 50 재정원리, 교회건물의 무소유, 청소년 선교와 사역, 교육선교, 전교인 제자훈련(예친사) 등을 통하여 주님의교회는 지속적으로 개혁하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해 왔다.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하에 중심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창립27주년기념 특집기획 : 함즐함울 지상토론 "주님의교회, 미래를 생각한다" ❻

# 주님의교회의 바람직한 미래

중심을 걸어가는 교회는 물론 권력, 물질, 명성, 규모에 있어서 중앙을 차지하는 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의 주변부에 서서 가난하고,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며 신앙적 정체성(상승)과 관계성(회귀) 사이의 중심에, 또한 구조와 성령 사이의 중심에 서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뜻한다. 양자의 균형 상실로 인하여 방황하고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에 계속해서 대안적 미래를 제시하는 주님의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사역에 앞으로도 함께하실 모든 성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나, 사람들이 그에게 가면 '가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교화된 기독교교육의 정신이다." - 조지 앨버트 코우, 미국 종교교육학자

**장신근** 교수 / 장신대 기독교교육학

##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교회

**아주 특별했던 주님의교회와의 만남**

내가 다니는 교회에는 교회학교 안에 연령대별 중장년부도 있다. 지난 10월 어느 날, 교회학교의 주일 특강을 부탁받았다. 무슨 얘기를 할까, 오래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직장"이라는 제목으로 결정했다. 교단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장을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학교가 아주 특별한 학교였다는 점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 것이다.

내가 정신여고 교장에서 퇴임한 것이 1999년 8월 말이니, 벌써 16년 전의 일이 되었다. 하지만, 주님의교회 첫 담임목사였던 이재철 목사가 퇴임한 1998년 6월 둘째 주일이 선명하게 기억난다. 어떤 공식적인 퇴임의 절차와 형식도 없이, 쓰던 자동차도 깨끗하게 수리해서 반납하고, 전교인들이 도열한 가운데 이 목사와 온 가족이 낡은 개인 승용차로 교회를 떠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내가 정신여고에 교사로 부임한 것이 1969년이었고, 1991년에 교장이 되었으니, 나로서는 교편생활의 마지막 시기를 주님의교회와 함께 한 셈이다.

돌이켜보면, 주님의교회와 함께 하는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이재철 목사가 담임목사 임기제의 약속을 지키면서 1998년 6월에 퇴임을 하기로 하고, 다음 해에는 내가 학교를 떠나게 되자, 과연 처음에 교회와 학교가 함께 했던 그 초심이 계속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다. 그래서 학교의 이사회가 결정하고 이사장 사인, 교회는 당회의 합의와 당회장의 도장으로 변호사의 공증을 받기도 했다. 또한, 주님의교회가 세워서 정신학원에 기증한 김마리아회관의 앞에 표석을 세워서, 담당자들이 떠난 오랜 뒤에도 주님의교회와 정신학원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자기희생의 정신을 통해 이루어진 교회**

정신학원과 주님의교회가 이런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던 시절의 교장으로서, 내가 기억하는 주님의교회는 참으로 보기 드문 교회이다. 앞에서 말한 특강에서도 나는 주님의교회를 이렇게 소개했다. "주님의교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내 교회를 안 세웁니다. 둘째, 교회 총 수입의 50%를 대외 지원에 씁니다. 셋째, 담임목사와 항존직의 임기제입니다. 담임목사는 10년, 부목사는 6년입니다. 물론 장로도 임기가 있습니다. 주님의교회는 이런 자기희생적 정신을 통해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주님의교회 이재철 목사와 정애주 사모와의 인연도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애주 사모는 정신여고 출신인데, 1977년 중창단 미주 순회공연 때 단원이었고, 내가 당시 단장을 맡아서 인솔을 했었다. 당시 학교에는 체육관 밖에 없어서, 부흥회를 하거나 큰 행사가 있을 때면 독립된 큰 강당이 없어 몹시 불편했다. 동창회와 협의하면서 강당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모로 고민하던 시절이었다. 음악회 등을 통해서 기금을 모으기도 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처음에 정신여고 4층 소강당에서 예배를 드린 교회가 있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였는데, 사정을 알고 나서는 지구촌교회에서도 강당 건물을 지어 기증하겠다는 제안을 했었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 논의한 결과, 침례교회였던 지구촌교회와는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고려하여 부결이 되었다.

1995년, 주님의교회에서 정신여고 합창단을 초청하여 연주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김마리아 선생에 대해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님의교회 요청에 간단히 정신학원과 김마리아 선생에 대해 설명하면서, 강당을 지으려 한다고 언급했다. 며칠 뒤인 1995년 7월 31일 오후 4시에 이재철 목사가 방문, 강당을 지어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YMCA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니, 일단 4층 소강당을 썼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지구촌교회에는 그해 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 1996년부터는 주님의교회가 정신학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주님의교회의 당시 교인은 1,100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주님의교회 교인들은 토요일에 나와 모두 청소를 함께 하고, 책상과 의자를 나르고, 나무로 된 교회 간판을 입구에 세워서, 주일 예배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예배가 끝나면 교인들이 집기를 모두 말끔하게 정리해서 보는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우여곡절이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얼마 뒤, 주님의교회에서 주관한 강당 건물의 설계도가 나왔다. 하지만 부채꼴 모양으로 된, 전통적인 교회 건축의 디자인이어서 무대가 너무 좁았고, 학생들의 수련 공간도 없었다. 학교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고 그 설계도는 거절되었다. 강당 건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1993년 프랑스 문부성 초청으로 프랑스 학교를 순회했던 때의 기억이 났다. 건물에 있던 중정이 예배 도중에 떠올라, 그것을 주보에 그려서 이재철 목사에게 메모로 전달했다. 주님의교회에서 당회를 열어 그 모델을 받아들여서, 설계는 학교가 하고 시공은 교회가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준공이 될 때까지, 건축에 대하여 교회에서는 전혀 간섭이 없었고, 퇴임 며칠 전, 오히려 내가 이재철 목사에게 건축 중인 강당을 돌면서 구조를 안내했었다.

준공감사 예배 때 감격스러운 것은 당시 이사장이었던 허재철 목사의 축사였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한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으로 하라 할 때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합니다. 강당을 세우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웃었었습니다. 지금 은혜 속에서 이처럼 훌륭한 강당이 마련되어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건물을 지어서 학원에 기증한 주님의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교회는 내가 퇴임한 뒤에, ↗

주님의교회의 여러 교인들이 처음 정신학원에 와서 보여주었던
그 헌신과 섬김의 자세를 잊을 수가 없다. 주님의교회가 갖고 있는 힘은,
이처럼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보는 이들을 감동시키는 데 있다고 본다.
주님의교회는 이런 자기희생과 무명의 헌신으로 앞으로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생활관 뒤 수련관을 2층에서 5층까지 증축했다. 이어서 중강당도 만들었고, 또 최근에 김필례기념관도 새로 건립, 기증해 주었으니 무척 감사한 일이다.

정신학원과 주님의교회는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왔다. 내가 퇴임한 뒤에 교장이 다섯 번 바뀌었고, 주님의교회의 담임목회자와 당회원들도 바뀌었다. 교회의 규모도 처음의 열배 가까이 늘었다. 상황과 사람이 바뀌었으니 초심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질 때도 되었다. 사람들 사이에는 언제나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법, 이재철 목사의 퇴임 전에 학교와 교회가 공증을 했던 까닭이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그 핵심은 학교와 교회 간의 여러 사소한 문제들은 정기적인 운영위원회를 두어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전반기와 후반기 각각 두 번씩 서로 번갈아가며 식사를 대접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문제를 풀어나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런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기원한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교회**

이제껏 주님의교회와 정신학원이 함께 하게 된 처음을 돌이켜 본 이유는, 당연히 주님의교회의 미래를 말하기 위해서이다. 주님의교회의 여러 교인들이 처음 정신학원에 와서 보여주었던 그 헌신과 섬김의 자세를 잊을 수가 없다. 주님의교회가 갖고 있는 힘은, 이처럼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보는 이들을 감동시키는 데 있다고 본다. 이 정신을 이어받은 주님의교회이므로, 앞으로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한다.

정신학원은 이 나라의 동량이 될 청년들을 키워내는 곳이고, 교회 교육의 차원에서도 청소년 선교의 귀한 터전이다. 주님의교회가 정신학원과 함께 하고 있음은, 주님이 주신 소명 가운데 청소년 사역이 으뜸임을 의미할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듯, 학교는 재정뿐 아니라 많은 자원이 언제나 부족하니,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기도어머니나 사랑어머니와 같은 사역을 통해, 또 전교인 모두의 기도를 통해, 정신학원이 더 훌륭한 학교로 성장하는 데 주님의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몫을 감당하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두 기관의 평화로운 관계가 지속되기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양보하고 발맞추어 가기를 기원한다. 그리하여, 그동안 누구에게나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직장"을 앞으로도 늘 감동 속에 함께 느끼는 학교와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지동소** 전 정신여고 교장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 기독교의 역사 25

# 일제하 미북장로회선교부 교육사업 인퇴(引退)(3)

1910년 정신여학교 제4회 졸업생. 앞줄 오른쪽 두번 째에 김마리아 선생이 보인다.

**일제의 사립학교 규칙 제정**

일제는 1911년 10월 '사립학교규칙'을 공포하였다. 이는 모든 사립학교를 규제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별히 종교계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는 들어있지 않았다. 그러나 일제는 1915년 3월 '사립학교규칙'을 개정하여 학교의 설치, 교육과정, 교사의 자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특히 '조선인을 교육하는 모든 사립학교'로 확대 적용시켜 종교계 학교에 성경과 예배를 교과목에 넣을 수 없게 하였다(제6조). 이 규칙은 1915년 4월 1일 현재 인가를 받은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1925년 3월 31일까지 즉 10년 동안 적용을 유예하였다.(부칙) 문면으로는 10년 유예라고 하고서 실제 행정에서는 실행을 독촉하였다.

일제의 교육령을 따르지 않으면 정규학교가 아닌 각종학교(各種學校)가 될 수밖에 없었다. 각종학교 졸업생들은 정규 학력을 인정받지 못해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점차 정규학교 인가를 받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먼저 이왕가(李王家)의 숙명, 진명 두 여학교는 사립학교규칙이 발표되기 전에 공립을 따라 1912년에 일제의 교육령을 따라 학교 이름도 여자고등보통학교로 바꿨고, 같은 이왕가 계통인 양정의숙도 1913년 이를 따랐다.

종교계 학교에 대해서도 10년 후에는 교원의 자격, 재정도 재단법인이라야 하고, 완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으로 지금 따르는 것이 낫다고 압박하여 1916년 배재학당, 1918년 이화학당, 1925년 배화여학교가 교명을 변경하였다. 조선인이 경영하는 학교로는 1917년 보성학교, 1918년에는 휘문의숙이 이를 따랐다. 그러나 장로교 계통의 정신여학교, 경신학교, 평양 숭실 등은 성경을 정식과목에서 빼는 것은 학교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10년 동안 총독부를 상대로 교섭하다가 안 되면 학교 문을 닫겠다고 하며 이 규칙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희천** 정신여고 교장

창립27주년기념 특집기획 : 함즐함울 지상토론 "주님의교회, 미래를 생각한다"

#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함즐함울은 올해 창립27주년을 맞아, "주님의교회,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특집을 기획했습니다.

지난 다섯 호에 걸쳐, ❶ 주님의교회 정체성의 내면 ❷ 교회사적 의미로 본 주님의교회 ❸ 교회 안에서 본 주님의교회 ❹ 교회 밖에서 본 주님의교회 ❺ 사회적 공간에서의 주님의교회에 대해서 교회 안팎의 여러 분들의 고견을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❻ 주님의교회의 바람직한 미래 에 대한 의견을 올해 마지막 호인 358호에 수록했습니다.

주님의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는 많은 성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고지 5매 내외의 분량으로 hamletter@daum.net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즐함울**

교회를 떠나며 | 부교역자 이임 인사

# 6년의 사역을 마치고

주님의교회 공동체를 섬겼던 부교역자 세 분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면서, 바쁜 가운데에서도 함즐함울의 요청에 기꺼이 인사의 글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 사역 현장에서 공동체와 동고동락하며 헌신하신 세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나다 순)

## 감사와 비전을 고백합니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인 동시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주님의교회로 인도하여 주셨고 부족한 모습들은 감추시고, 제게 가지고 계신 뜻을 이루기 위해 많은 훈련을 허락하셨습니다. 지면을 통해서나마 6년의 사역을 마치며 고백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감사요, 둘째는 비전입니다.

첫째, 주님의교회를 통해 사역자로 훈련받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고등부와 장애인부서, 그리고 복지부와 교구, 그리고 선임행정까지 비교적 다양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일하는 노하우를 배운 것에 대한 감사보다, 더욱 크게 와 닿는 부분은 사역자의 마음가짐과 목회의 본질을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교회를 통해 인생의 멘토를 만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박원호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나라 신학을 경험 할 수 있음은 개인적으로 큰 은혜입니다. 많은 부교역자들의 좋은 점들을 옆에서 볼 수 있음도,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과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음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교회를 통해 잊지 못 할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연약한 우리 아이들을 품어주고, 때를 따라 격려와 기도로 말미암아 삶의 고비 고비들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약하지만 교회와 성도를 향한 저의 사랑을 기꺼이 받아주고 함께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둘째, 비전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분명한 목회비전을 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비전이 있으면 고난도 역경도 이길 수 있고, 희생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양립하기 힘든 이분법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회복을 향해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깨달음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역의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사역은 지역의 허브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와 같이 호흡하며 함께 나이 들어가고, 지역의 영적인 도움과 현실적 필요를 채우며, 연약한 자와 함께 하기를 꿈꿉니다.

현재의 고백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의 결과이기에 늘 감사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기에 소망을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아내와 두 아들이 소망 중에 꿈을 꾸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성훈** 목사

##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09년 12월 송구영신예배 때 첫 인사를 드리며, 주님의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폭설 속에 이사왔던 때가 정말 어제 같습니다. 숨가쁘게 지나온 6년이었습니다. 7교구와 늘푸른대학과 가락본동어린이집 위탁운영 사역 등 복지사역을 담당하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목회인생에 기억될 예수친구사역을 2010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친사 코어그룹, 예친사 뿌리기수, 1기, 2기, 3기, 4기, 5기(사명자대회)에 이르기까지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국제교육선교센터가 설립되고 운영을 맡으며, 베트남과 케냐 그리고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교육선교를 펼칠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목회기획도 맡아 6년을 사역했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제게는 걸맞지 않는 사역들이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개척하시고 이끌어주신 박원호 목사님의 가르침과 신뢰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아직 서툴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었을 텐데도, 목회자로 존중해 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어 무사히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7교구 식구들과 예수친구사역 스텝들, 함께 고생했던 예친사 전도사님들, 양육과정을 통해 함께 한 분들의 사랑과 섬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새롭게 나아가려 합니다. 그 길이 광야가 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보내시면 그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머물렀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하시고, 더욱 복된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2.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종을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3. 뿌리 깊은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최희은 사모, 딸 조하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지켜주옵소서.

주님의교회에 제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조광민** 목사

##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주님의교회에서 6년째 사역을 마치고 사임하는 조정현목사입니다.

6년 전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있었지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6년간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 가운데 저의 필요한 부분을 채우시고 저의 연약한 부분을 돌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제가 맡았던 6교구와 5교구 식구들 그리고 소그룹사역, 전화상담팀, 금요기도회, 상례부, 교적관리 등, 여러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사역들은 내가 맡은 것이 아니라 잠시 내게 맡겨진 사역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역시 떠날 때가 되니 내가 하려고 한 것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구분되더라구요. 그가 하신 것만이 옳았고 정확했고 강력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제 2015년 12월이 다 지나가네요!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다음 사역지가 결정되었는지 묻습니다. 답을 드려야겠지요?^^

"아니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결정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제 안에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말씀을 전하고자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는 알지 못하나 교회와 제게 합한 시간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동안 사역을 함께 한 분들과 또한 이름은 모르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주님의교회 교우분 들께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조정현** 목사

## 2016년 업무 분장

### 1. 2016년 제직부서

| 구분 | 위원회 | 간사장로 (2015) | 간사장로 (2016) | 분과 위원회 | 위원장 (2015) | 위원장 (2016) | 교역자 (2015) | 교역자 (2016) |
|---|---|---|---|---|---|---|---|---|
| 사역위원회 | 목양 | 김창안 | 장일형 | 예배 | 손천숙 | 손천숙 | 유성훈 | 심홍섭 |
| | | | | 음악 | 최성준 | 최성준 | 김용웅 | 김대환 |
| | | | | 소그룹 | 최상인 | 김한종 | 조정현 | 장수현 |
| | | | | 2030교구 | 동현수 | 동현수 | 문희삼 | 문희삼 |
| | | | | 양육 | 박재준 | 박재준 | 최방은 | 홍성욱 |
| | | | | 미디어 | 배익환 | 배익환 | 장수현 | 문희삼 |
| | 교육 | 김한종 | 최상인 | 어린이 | 지유철 | 지유철 | 김정형 | 문은영 |
| | | | | 청소년 | 조성득 | 심동욱 | 문은영 | |
| | | | | 청년 | 이용수 | 이용수 | 정재상 | 정재상 |
| | | | | EM | 김유호 | 김유호 | 죤 슈나이더 | 죤 슈나이더 |
| | 섬김 | 조원호 | 조성득 | 봉사 | 강진식 | 강진식 | 김대환 | 김정형 |
| | | | | 복지 | 노봉옥 | 노봉옥 | 정창화 | 정창화 |
| | | | | 국내선교 | 김학원 | 김학원 | 홍성욱 | 김용웅 |
| | | | | 문화스포츠선교 | 장일형 | 조원호 | 김용웅 | 이은석 |
| | | | | 통일선교 | 정종국 | 정종국 | 임창진 | 허준 |
| | | | | 해외선교 | 박중순 | 박중순 | 심홍섭 | 최방은 |

| | | | | |
|---|---|---|---|---|
| 부설 | 국제교육 선교센터 (2016년) | 박원호 | 센터운영팀 | 최상인, 노봉옥 |
| | | | 교육선교연구소 | 지유철, 최봉도, 연구원 1명 |
| | | | 예수친구사역원 | 박재준, 이은석 |
| | | | 12단계성경연구원 | 박중규, 홍성욱 |
| | | | 청소년사역원 | 심동욱, 문은영 |

2015년
당회서기 : 박중규 재정위원회 : 김성구 감사위원회 : 박대길
선임행정 : 유성훈 선임기획 : 조광민

2016년
당회서기 : 김창안 재정위원회 : 김성구 감사위원회 : 박대길
선임행정 : 임창진 선임기획 : 심홍섭

### 2. 2016년 전문위원회

| 구분 | 위원회 / 센터 | 위원장 | 위 원 |
|---|---|---|---|
| 전문위원회 | 기획조정위원회 | 박원호 | 김창안, 최상인, 장일형, 박중규, 박대길, 조성득, 김성구, 임창진 |
| | 학원협력위원회 | 김창안 | 김성구, 지유철, 손천숙, 노봉옥, 이용수, 심동욱, 문은영 |
| | 사무국운영위원회 | 박원호 | 김창안, 최상인, 박재준, 김성구, 강진식, 최성준, 임창진 |
| | 상례위원회 | 김한종 | 강진식, 피택장로 5명, 장수현, 교구담당부목사 |
| | 인사위원회 | 박원호 | 김창안, 박중순, 지유철, 동현수, 노봉옥, 임창진 |
| | 선거관리위원회 | 김유호 | 동현수, 김학원, 최성준, 배익환, 최방은 |
| | 예산심의위원회 | 박원호 | 김창안, 최상인, 장일형, 박대길, 김성구, 정종국, 임창진 |
| | 목회지원위원회 | 박중규 | 조원호, 지유철, 손천숙, 이용수, 심동욱 |
| | 장학위원회 | 박중순 | 박재준, 김유호, 김학원, 정종국, 배익환 |

### 3. 2016년 교구 목사

| 교구 | 교역자 | 교구 | 교역자 |
|---|---|---|---|
| 1교구 | 장수현 목사 | 6교구 | 심홍섭 목사 |
| 2교구 | 김정형 목사 | 7교구 | 김용웅 목사 |
| 3교구 | 김대환 목사 | 8교구 | 홍성욱 목사 |
| 4교구 | 이은석 전도사 | 9교구 | 정창화 목사 |
| 5교구 | 최방은 목사 | 10교구(젊은이) | 문희삼 목사 |

### 4. 2016 전임전도사

| 교구 | 교역자 | 교구 | 교역자 |
|---|---|---|---|
| 1교구, 소그룹, MUN | 박찬 전도사 | 6, 7 교구 | 이상현 전도사 |
| 2, 3 교구 | 이용 전도사 | 8, 9 교구 | 신주찬 전도사 |
| 4, 5 교구 | 이재설 전도사 | 10교구(젊은이) | 이태욱 교육전도사 |

섬김과나눔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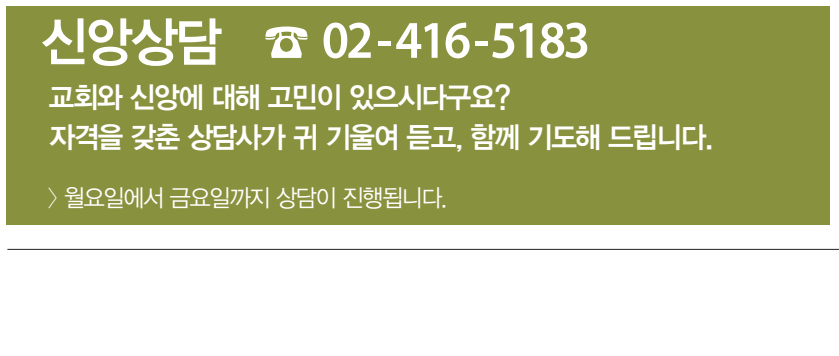
# 2015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

(사)섬김과나눔과 늘푸른대학은 지난 12월 6일(주일) 주님의교회 1층 로비에서 박원호 담임목사의 축도로 2015년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날부터 12월 27일까지 4주간 매 주일에 '사랑의 털모자' 전시회를 개최하고 후원금을 접수하여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내외 신생아, 아동, 무의탁 독거어르신, 중환자 등 불우한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 캠페인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웃사랑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2012년에 처음 개최하여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총 1,709명의 교우와 지역주민이 참여하였고, 털모자 재료비 등으로 기부한 후원금은 총 29,757,000원에 이른다. 털모자 4,776개를 제작하여 국내외 영유아, 아동, 독거노인, 호스피스병원 환자들에게 전달하였고, UNICEF와 기아대책을 통해 외국의 결식아동 15명과 북한어린이 25명에게 연간 12,600,000원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정신여고(이희천 교장) 1학년 학생 422명 전원이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사랑의 목도리를 떠서 캠페인에 동참했다. 학생들이 뜬 목도리는 병원 환자들과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울 예정이다.

**함즐함울**




교회단신

# 미술팀, 애란원과 통일선교 후원 소품 전시

미술팀에서는 12월 6일과 13일 두 주일에 걸쳐 지하 푸른초장에서 미술팀들이 직접 제작한 십자가, 여러 가지 배너 등의 공예품, 크리스마스 소품 등을 전시 판매했다. 판매 이익금들은 애란원 증축 기금과 통일 선교 후원을 위한 기금으로 전달되었다. 애란원은 미혼모자들이 거처하는 둥지이다. **함즐함울**

## 아기나들이

### 김민석 아기

2015년 10월 31일생

1.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2. 자기를 부인할 줄도, 사랑할 줄도 아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3. 인생의 목적을 아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빠 김성곤 / 엄마 오민희, 2015년 12월 13일 3부 예배

### 안지민 아기

2015년 7월 10일생

1.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2. 먼저 마음을 열고 베품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아빠 안상욱 / 엄마 김효선, 2015년 11월 29일 3부예배

## 알립니다

**1.성탄 축하 음악예배**
**일시** : 12/23(수) 오후7:30 대예배실
**내용** : "사랑의 왕"
**출연** : 시온찬양대, 주오오케스트라

**2.유아세례식** : 성탄절(12/25) 2부 예배시

**3.휴무 안내**
- **도서부 겨울방학**(주일은 정상 개관)
  **기간** : 2015/12/21(월)–2016/2/20(토)
  **문의** : 신영백 안수집사(010.2684.8320)
- **쉴만한 물가**
  **기간** : 2015/12/28(월)–2016/1/30(토)
  **문의** : 문희주권사(010.2056.0637)
- **전화상담부 겨울방학**
  **기간** : 2015/12/28(월)–2016/1/29(금)
  **문의** : 황정매권사(010.2715.1220)

**4.2016년 부활절 예배드라마 연기자 모집**
**대상** : 전교인(연령, 연기경력 제한 없음)
**문의** : 문규호전도사(010.4909.1831)

**5.아버지학교 지원자 모집**
**일시** : 2016/1/10(주일)–2/14(주일) 5주간 * 2/7 구정 연휴로 쉽니다
**장소** : 소년부실(3층) / 회비:12만원
**문의** : 김명훈 안수집사(010.5285.6032)

**6. 교회음악 세미나**
**일시** : 12/26(토) 오후6:99 찬양연습실(지하)
**내용** : 교회음악개론 및 발성법
**대상** : 각 찬양대원 및 음악에 관심있는 분
**문의** : 최영배 안수집사(010.5246.7410)

**7. 규정작업완료**: 12월 당회에서 인사운영규정의 제정과 선교사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모든 규정작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규정집을 발간할 예정이며 모든 규정을 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박대길 장로(010.5493.6616)